

## 중동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문 준 조

### <목 차>

- I. 의의
- II.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 III.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IV. GCC 이외 국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및 이란
- V. 결론: 중동의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 I. 의의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역동적인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동의 외국인투자법 또는 무역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한 국가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정보 및 서비스에 기반하는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 比較法學 (第18輯)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경제다변화, 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 인구증가, 지역통합 노력, 이라크 재건 등의 요소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동지역은 서방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를 석유와 국가지원금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로 운영되던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sup>1)</sup>.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중동의 민영화작업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액은 연간 31억달러에 달한다<sup>2)</sup>.

외국인투자 수요를 촉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인구의 35%가 15세 이하이며,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동의 젊은이들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서방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sup>3)</sup>.

현재 페르시아만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라 한다)는 대외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GCC는 역내국가간 협력과 지역통합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GCC는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사우디아라비아, (2) 쿠

1)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02/12/fasano.htm>.

2) Emad Tinawi, Middle Eastern Law, Int'l Lawyer. Vol.31(1997), pp.541-544.

3) The World Bank Group,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56 (2004), available at <http://www.worldbank.org/data/wdi2004/tables/table5-1.pdf>.

웨이트, (3) 바레인, (4) 카타르, (5) 오만, (6)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GCC는 1980년 구성된 이후 경제통합, 투자, 무역, 노동 등에 관한 법규정의 통합, 통화동맹의 창설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통해 GCC는 미국의 다섯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수출대상지가 되고 있다<sup>4)</sup>.

최근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방 기업들이 진출하고 전반적으로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해제되면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의 투자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에게도 무역·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의 법적 전통 및 역사, 문화, 종교 기타 경제협력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분석에 앞서 중동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한다.

## II.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 1. 중동의 지역적 범위와 문화

“중동”은 본래 오스만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서 서남아시아에서 북동아프리카를 포함하며 지정학적·문화적 개념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사이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sup>6)</sup>.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의 실제 경계선

4)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the Gulf Countries [hereinafter ABCGC], The Gulf: Competition for a Key Market, available at <http://www.abcg.org/thegulf.htm>.

5) [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2634077](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2634077).

#### 4 比較法學 (第18輯)

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서쪽 절반에는 나일 강 델타를 따라서 남동지중해지역 또는 오늘날의 이집트가 해당되며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란까지 포함된다.

중동에는 일반적으로 리비아, 이집트, 터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이스라엘, 키프로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중동은 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오랜 역사에 대한 공동의 자긍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제국이 있었고 유일신 사상이 생겨났으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지역이다.

이집트의 나일강 저지대와 델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은 인류 초기의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기원전 13세기), 기독교(서기 1-4세기), 이슬람교(서기 7세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풀이 우거진 고원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문명이었다<sup>6)</sup>.

세월이 지나면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는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이 제국들의 심오한 철학 및 과학적 성과가 중동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탄생 직후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바그다드에서 멀지 아닌 곳에 견고한 수도를 건설하였다. 6세기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전쟁으로 대상의 행로를

6) [http://encarta.msn.com/encyclopedia\\_761579298/Middle\\_East.html](http://encarta.msn.com/encyclopedia_761579298/Middle_East.html).

7) 당시 이 지역에서는 초기형태의 무역, 통화, 은행, 바퀴, 쟁기, 설형문자 등이 있었으며 최초의 알파벳과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 수학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하(algebra),” “알칼리성(alkaline)” 등의 단어도 중동에서 기원한 것이다.

따라 지중해 연안과 동방 사이에 교역 센터가 만들어지고 발전하였다.

중세에 중동 지역은 초기적인 국제 무역과 상거래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중동 전체에 걸쳐 실크의 무역호가 형성되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사람들과 상품을 연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상업, 무역, 통화의 교환을 통한 부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 거래, 조세 체제, 협상, 재산 목록, 임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토판에 잘 나타나있다<sup>8)</sup>. 이때부터 중동의 사람들의 성장과 번영에서 상거래와 교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중 받고 있다.

한 때 이 지역을 지배했던 광대한 제국의 흔적 속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 독특한 민족과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전통은 북동쪽의 페르시아 제국, 북서쪽의 이집트, 서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서기 7-8세기의 아랍제국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 지역의 3대 민족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은 모두 자신들의 독특한 민족적 전통, 언어, 문학, 문화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 세기에 걸쳐 이슬람교라는 공통의 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 왔다. 이 지역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이며, 중동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이슬람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 이슬람 문화 · 전통의 기업 활동에 대한 영향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예언자 마호메트에 의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탄생하였다. “알라” 신의 말은 마호메트에게 전해져 이슬람교의 경전인 성스러운 코란에 기록되었는데,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예언을 인정하면서도 코란은 신의 최후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스스

8) <http://www.uoc.edu/humfil/articles/eng/panosa0304/panosa0304.pdf>.

로를 구별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교 신도의 수는 십억 명을 상회하며, 세계 인구의 거의 1/6에 해당한다.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가 이슬람교의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sup>9)</sup>, 그 대부분은 자국의 법률에 이슬람교의 율법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양식 역시 이슬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개개의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슬람 율법을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슬람의 원칙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슬람 원칙의 일반적인 역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지역 전체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테러, 근본주의 또는 언론매체가 유포한 왜곡으로 인해 이슬람신앙의 기반과 근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슬람교가 진정으로 기반하고 있는 사상 및 7세기 중동지역의 어떠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이슬람교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여야 이슬람 신앙과 중동지역의 문화, 전통, 오늘날의 법률 및 사업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교가 엄격하다는 일반적인 오해로 인해 이슬람법이 현대의 상업 활동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sup>10)</sup>. 그러나 이슬람법은 중동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사업 관행과 거래의 결합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왔다<sup>11)</sup>. 다만,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어오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제도와 사법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종합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다.

---

9) Raj Bhala, Poverty, "Islam and Doha: Unmet Challenges Facing American Trade Law", *Int'l Lawyer*, Vol.36(2002), p. 159, 184 n.136.

10) Howard L. Stovall, "Arab Commercial Laws into the Future", *Int'l Lawyer*, Vol.34(2000), p. 839, 841.

11) *Ibid.*

오늘날, 이슬람법은 세계 주요 비서구적 법률제도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통합된 단일 이슬람 법률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법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중동 법률제도의 공통점은 흔히 “샤리아(Shari'a)”<sup>12)</sup>라고 부르는 이슬람 법률원칙과 유럽 시민법의 모델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란은 또한 사법활동 원칙의 근원이며 이슬람교도간의 법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호메트 선지자가 만든 중재수단이기도 하다. 현대의 분쟁에 코란을 적용하는 데는 코란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법이 가족법(결혼, 이혼, 상속), 형법(간음, 중상, 중독), 증거(증인의 인용), 일부 상업적 문제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sup>13)</sup>.

이후 19세기까지 이슬람법의 발전 과정에서는 일찍이 코란과 수나에서 유래된 법의 근본원칙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정적 규제와 수정을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지 않았다. 합의 도출과 유추라는 이슬람의 원칙을 통하여 이슬람의 법학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샤리아의 기반구조에 맞춰왔다. 그 결과, 중동 각국간에는 이슬람법을 보충하기 위한 법 해석과 규정들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호메트 사후 많은 이슬람 학파와 법학자들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근본적인 법원칙이 코란과 수나에 포함되어 있지

12) 샤리아는 종교적·법적 계명을 말하며, 마호메트 선지자를 통해 신이 코란과 “수나(Sunna)” 즉 예언자의 전통을 기록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샤리아”는 “올바른 길,” 또는 이슬람 원칙을 지키며 살고자 소망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지침을 뜻한다. 수나는 이슬람법의 두 번째 근원으로, 마호메트 선지자와 그 가족의 행위에서 탄생한 전통과 관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선지자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등을 다룬 이야기들이 법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자가 죽은 뒤 수나는 여러 이슬람법 학파에 의해 취합되었다. 결국 중동 전역에서 등장한 학파들은 하디스(Hadith)의 형태와 정확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학파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 법률의 기반과 여러 중동 국가 내에서 이슬람법이 수행하는 역할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13) <http://www.ummah.org.uk/what-is-islam/quran/noble/subject1.htm>.

만, 이러한 법원칙들은 이슬람 법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중동 지역 전체에서 보완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왔다. 결국 이슬람 국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규칙도 바뀐다”라는 이슬람의 법리에 따라 자신들의 법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 3. 세계화와 이슬람의 법문화 변천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이라는 틀은 고정되고 안정적이지만, 그로부터 실제로 출현하는 현상은 정체적이거나 획일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슬람 개혁가들은 기존의 이슬람의 규율과 제도의 틀속에서 무조건 전통이나 이슬람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분석이나 해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동국가들도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제도를 수정하고 시장장벽을 낮추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시대에 뒤쳐진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19세기 초 서방의 무역과 교역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국제화의 씨앗이 싹텄던 때로부터 이슬람적인 법률체제를 국가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개혁하여왔던 것이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은 중동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이 시기에 중동 지역은 무역, 사상의 폭넓은 교류,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의 유입 등을 경험하였다. 또 같은 시기에 중동 지역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유럽수입품들이었다. 유럽인들은 자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점점 개방되고 있는 부유한 시장으로 파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중동과의 교역 및 중동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유럽의 법원칙에 이슬람의 법률제도를 반



영시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슬람의 법질서의 대부분이 유럽식의 법령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되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상업관련법과 절차를 수용하였으나, 제국의 기반인 이슬람교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의 실제적인 구조를 수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슬람의 법률의 틀에 서방의 새로운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추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럽의 상업 및 교역 관련 법이 계속 이슬람의 법률 체제에 혼합되었다. 교역법에 있어서는 법률체제가 크게 변화하기도 했지만, 유럽의 법은 이슬람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존의 법적인 틀안에 공존하였다.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개방적 사고를 가진 권력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반응하여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공동체내의 반대에 대응하였다<sup>14)</sup>. 이러한 움직임은 마담(madhab)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법률추론을 통해 얻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이슬람의 법률학파로부터 시작되었다<sup>15)</sup>.

19세기 이래로 이슬람 국가들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법률체제를 재평가해왔다. 이슬람의 추론과 합의도출의 원칙에 따라 이슬람 법학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재판을 실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새로운 법질서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규범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14) <http://www.michaelnovak.net/Module/Article/ArticleView.aspx?id=42> (June 8, 2004).

15) 여기에서는 울라마(ulama)라는 종교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키야스(quiyaas), 이즈마(ijmaa) 등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샤리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학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키야스와 이즈마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유도하였다. 울라마는 중동의 주요 도시의 수많은 법률학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의 산물은 중동 지역의 사상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이슬람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현대적인 상사관련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샤리아의 원칙과 현대의 상법 및 계약법은 외국으로부터의 무역과 기술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강하게 결합되었으며 법률체제는 세계화와 무역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보강되고 재구성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틀아래”라는 대전제하에서 다소 다른 법률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동과 유럽의 규범이 혼합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서구화되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범구조와 원칙이 탄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슬람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의 입헌주의와 입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차이는 그들의 법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서방의 입헌주의는 집권세력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는 반면에 중동국가들은 헌법은 국가주권을 표현하고 이데올로기를 선언하고 권력체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입법 역시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법제정이란 신성한 코란에 영원히 기록된 원칙에 법을 결합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동의 각국 정부는 코란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한 행정적·조직적 권한만을 갖는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제관계의 긴밀화와 대외무역의 확대에 따라, 서구의 민사법 및 상사법을 모방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세속적인 법원이 조직되어 이러한 새로운 법이 규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게 되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한 민상사 분쟁을 다루는 세속적인 법원외에 가족법 및 국민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민사 분쟁을 담당하는 “샤리아” 법정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민상사관련 문제는 이슬람의

법원칙을 벗어나 또는 원칙에 반하여 해결하되,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실용주의의 사례는 이슬람의 법률 체제가 리바(riba) 또는 이자(대출로 받는 이자 등의 불로소득을 말함)와 일부 보험계약 형태의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가라(gharar)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6)</sup>.

이슬람 국가들은 리바 또는 이자의 문제를 사적인 상업계약상의 이자 소득증 용인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하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기간별 이자가 아닌 기간별 사용료를 설정하는 실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sup>17)</sup>. 역설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샤리아에 의해 법률제도에 가해진 제한이 오히려 유리한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은행이 무이자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분야에서는 외국은행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불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자문제를 피하여야 하며, 외국기업들로서는 현지 구매자들이 “현금 지불”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중동국가들은 대부분 근원이 다른 두가지 법체도를 유지하고 있다<sup>18)</sup>. 샤리아에서 파생된 법규는 아직도 가족법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속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9)</sup>.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는 상거래, 대외무역, 노동, 법인 과세, 기업,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대적인 상사관련법이 존재한다. 상업적 분쟁은 주로 샤리아 법정과 병존하는 세속

16) Umar F. Moghul, Esq. & Arshad A. Ahmed, Esq., “Contractual Forms in Islamic Finance Law and Islamic Inv. Co. of the Gulf (Bahamas) Ltd. v. Symphony Gems N.V. & Ors.: A First Impression Of Islamic Finance”, *Fordham Int’l L.J.*, Vol.27(2003), pp. 170-171.

17) <https://www.arabfinance.com/research/ResearchView.asp?researchID=596>.

18) H.S. Shaaban,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iddle East: What Law Governs?”, *Law & Pol’y Int’l Bus.* Vol.31(1999), p.157, 160.

19) Hossein Esmaeili & Jeremy Gans, “Islamic Law Across Cultural Borders: The Involvement of Western Nationals in Saudi Murder Trials”, *Denv. J. Int’l L. & Pol’y*, Vol.28(2000), pp.145-147.

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이슬람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법 및 상법과 과거 도입되었던 유럽식 법령은 비내국인 사이의 분쟁, 계약, 상업, 친족관계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통 민사 또는 세속적인 법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조약, 국제기구 또는 다른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한 법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나 GCC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법적인 분쟁해결, 무역 확대와 해외 투자에 대하여 친화적인 대외 정책 수립 등 급속히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지역 통합과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균일성,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강한 의존도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III. 페르시아만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1. 의 의

중동지역에서 역내 국가상호간의 통합, 협력, 투자 및 무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지역적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는 역내국가 상호간의 특별한 관계, 공통의 특성, 이슬람 교리에 기초한 유사한 체제 등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1981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중동 국가들에 의하여 창설된 페르시아만협력회의(이하 “GCC”라 한다)는 상업, 통관, 통신, 입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조

정, 통합 및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석유에 기반을 둔 경제 운용을 하고 있어 석유에 자국 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부진, 국내노동력의 빠른 증가 등을 인식한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우려에서 경제 개혁과 통합이라는 공동의 종합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sup>20)</sup>.

창설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GCC는 경제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보여 왔다. 1980년대 초부터 이 기구 회원국들의 GDP 합계는 3,3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세계 원유매장량의 45%,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GCC는 대단히 큰 시장이며 미국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이다<sup>21)</sup>.

GCC 회원국들은 강력한 교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주요 투자허브로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보다 철저한 정책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계획대로 통화동맹이 추진된다면 정책조율이 촉진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 투명성이 향상되며 무역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GCC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22)</sup>.

20)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또는 국내정책조율 등을 통한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갖는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서방국가들간의 지역통합사례로서, GCC가 중동지역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삼고 있다.

21) GCC 국가로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 매출은 연 총액 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ABCGC, The ABCGC: Promoting America's Business Interests in the GCC, <http://www.abcg.org/about/htm>.

현재 GCC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 외국인직접투자 장애제거, 석유기반 경제로부터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의 구조 개혁을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다. GCC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적 관심사를 공유할 뿐 아니라 각기 서로 유사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문화, 언어, 역사의 공통점으로 인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쉽다. 그리하여 중동 전역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대책을 일관적으로 또한 동시에 도입해왔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통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위한 GCC의 과제에는 향후 다양한 구조조정과 개혁노력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역내 단일통화와 미국 달러화의 연동, 금융 및 경제 정보의 통합, 역내 상사법의 조율, EU와 유사한 역내중앙은행의 설립 등이 해당한다. 각 회원국은 기본적인 구조조정과 규칙을 도입하여 향후 개혁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현대적인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GCC의 각 회원국이 국제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경쟁하기 위하여 경제다변화, 통합, 민영화 등 광범위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살펴본다.

## 2. 회원국의 외국인투자법과 환경

### 1) 바레인

바레인 지도자들은 석유가 고갈되는 경우 바레인의 재정과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동의 해외금융 및 투자 허브의

22) IMF는 최근 GCC 회원국들이 제한적변동환율제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IMF는 GCC 국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적 구조개혁을 통하여 통화동맹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미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경제구조다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조세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1975년 바레인은 대규모 외국은행을 끌어들여 해외뱅킹에 관한 허가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 50개 이상의 은행이 해외 뱅킹업무의 허가를 받았다<sup>23)</sup>.

그 밖에 일부 은행들은 사업의 중점을 대출사업에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바레인에서는 21개 투자은행, 59개 은행의 해외대표사무소, 20개 상업은행, 28개 외환 및 통화 중개업체가 영업 중이다. 걸프국제은행(Gulf International Bank)의 자산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바레인 최대의 해외뱅킹 은행이다. 바레인 씨티은행은 바레인에서의 영업활동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실적이 양호함을 인식하여 자본금 2천만 달러의 이슬람 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바레인 은행들의 주된 장점은 중동과 서구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레인은 1992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홍보 및 마케팅위원회(Overseas Promotion and Marketing Committee)와 바레인개발은행(BDB, Bahrain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였다. BDB는 민간 부문에 정부출자 또는 대출을 매년 4백만 바레인디나르(BD)(1,050만 달러) 이상 증액시켜왔다. BDB는 현금, 부동산 또는 공개 주식을 담보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민영화와 산업기반 다변화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바레인 경제체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업 부문이 아직 대부분 정부 통제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산업은 외국인투자에 개방이 되었고 민간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3) 여기에는 홍콩,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의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레인통화청(BMA, Bahrain Monetary Agency)은 이러한 은행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BMA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바레인 국내에서 영업을 가능하다. 바레인 정부는 금융 부문을 BMA를 통하여 면밀하게 감독하여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왔다.

또한, 바레인으로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상사관련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sup>24)</sup>. 상사법에서는 기업이 바레인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기업자본의 대부분을 산업개발계획에 투자하고자 하는 때,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 외자기업을 허용한다<sup>25)</sup>.

바레인 경제의 또 다른 인센티브는 석유탐사업이외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다는 점이다. 이윤, 회수자본, 배당금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원재료와 반제품, 개발 관련 제품, 환적물품, 재수출품은 모두 세금과 관세가 면제된다.

바레인에는 또 수도부근의 항구에 미나솔만자유무역지대(Mina Sulman 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있다. 재수출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하지 아니하며, 자유무역지대내의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소유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자는 상무부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전에 BMA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해외기업, 지점, 사무소의 100% 외국인 소유권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특정한 부류의 기업들 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여 바레인인과 GCC 회원국 국민만이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6)</sup>.

24) [http://www.wrf.com/db30/cgi-bin/pubs/Middle Eastern Commercial Law.pdf](http://www.wrf.com/db30/cgi-bin/pubs/Middle%20Eastern%20Commercial%20Law.pdf).

25) 외국기업들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1977년 상사법이 개정되어 100% 외국인 소유의 폐쇄형 공동출자회사(주식회사)를 허가한 이후 지금은 유한책임회사의 100% 외국인 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1997년 바레인 상무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된 특정한 범주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바레인은 정치적 안정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의 자국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2000년 2월 바레인은 새로운 국가헌장(National Charter)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는데, 여기에는 27년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양원제 의회의 부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완전한 분립, 인종, 종교, 성별간의 기회균등, 정치범 사면 등 일련의 헌법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식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이다<sup>27)</sup>.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정(政情)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통화 역시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중은행 부문은 다른 주요 산업화 국가에 비하면 업무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비약적으로 업무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회원국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크다. 사우디는 석유이외의 다른 부문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WTO가입을 위하여 무역자유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통신, 전력, 항공, 우편, 철도, 항만, 수도시설 등을 잠재적인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영화하였다.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고경제위원회(Supreme Economic Council)가 설립되었다. 최고경제위원회는 정책과 예산 수립을 감독하고 정부 기관간의 정책수행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며, 사우디일반투자청(SAGIC, Saudi

26)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미국 정부도 바레인에서의 사업 기회에 주목하게 되었고 바레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Zoellick Joins Launching of US-Bahrain FTA Congressional Caucus (Mar. 3, 2004), available at <http://www.ustr.gov>.

27)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Economy & Resources, <http://www.sagia.gov.sa>.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은 산업 활동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04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법과 최근의 보험법은 사우디시장으로 광범위한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2003년 6월에 통과되었으며, 호황을 맞고 있는 사우디 경제의 활력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자본시장법은 은행 부문에서 기본적인 소매금융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변화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이 제공하는 기회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른 GCC 국가들이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직후 바레인의 걸프국제은행(Gulf International Bank),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뱅크 인터내셔널(Emirates Bank International),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국립은행이 새로운 은행허가를 취득하였다. 유럽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은행 부문에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2003년 10월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지점 설립을 허가하였다. 향후에도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대형 투자펀드의 정부지분 매각, 그리고 정부소유은행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연간 토지 임차료를 평방미터당 0.02달러로 정하고, 항만사용료를 50% 감액하고, 산업기계류의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사우디 국민들과 동일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농업 부문과 공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10년간의 면세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장 중에 있는 산업부문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사전에 산업전력부(Ministry of Industry and Electricity)로부터 사업에 대

한 허가를 받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우디에 자본을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 회사와 외국인은 외국자본투자위원회(FCIC, 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에게 국내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 사람이 회사의 25-50%를 소유하고 있다면 FCIC 허가를 얻기가 훨씬 쉽다.

또 수입업은 사우디인이나 사우디 회사에게만 허용된다. 정부 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외국기업은 사우디 국내에서 에이전트로 등록된 사우디 국민이나 주민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우디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이외의 방법으로 사우디 자원으로 부터 수입이 있는 외국인 개인은 수입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소만을 설치하고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상품의 지역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부분 사막지대인 국토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 정부는 이 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일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농업 부문의 고정 자산의 80%까지, 3백만 사우디리얄 이하의 용자를 제공하고, 3백만 사우디리얄 이상의 프로젝트에서는 40%까지의 용자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신규 농업 프로젝트 비용의 90%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다른 은행이 외국인 대출자의 담보를 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사우디 은행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상업부문에 대한 제약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알코올과 돼지고기가 포함된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가축, 책, 정기간행물, 영화, 약품 등을 수입할 때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개인과 기업은 사우디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국내에 등록된 회사만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새로운 부동산법

에서는 외국인이 기업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기 원하는 외국인 직원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3) 쿠웨이트

1999년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는 인간개발 분야에서 쿠웨이트를 아랍의 다른 모든 국가보다 상위인 세계 35위로 평가하였다<sup>28)</sup>. UN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쿠웨이트 정부의 노력과 보건 및 교육 분야의 발전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1994년 WTO에 가입한 후 걸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상표법, 특허법,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법 등 새로운 투자법들이 탄생하였다.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법(Direct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여러 개의 정부 사무국을 설치하여 면허와 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및 국내 투자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관료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들은 쿠웨이트 기업의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55%에서 25%로 인하되었다<sup>29)</sup>. 또 기업에 세금 면제 혜택을 10년간 부여하며, 자본과 원자재 수입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도 허가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자본사무국을 설치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신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업에서는 이미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은 내국인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쿠

28) Kuwait Information Office, Investment Climate, available at [http://www.kuwait-info.org/Business in Kuwait/investment climate.html](http://www.kuwait-info.org/Business%20in%20Kuwait/investment%20climate.html).

29)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3/13, Jan. 2003, <http://www.imf.org/external/pubs>.

웨이트는 최근 일련의 저작권 및 특허법을 정비하였다. 저작권, 특허, 상표법은 2000-2001년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쿠웨이트는 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에서 명시한 국제 표준을 지킬 수 있었다.

1983년 8월 14일 쿠웨이트증권거래소(KSE)가 설립되어 그 이래로 이 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거래소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KSE는 외국인의 뮤추얼펀드 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GCC 회원국 국민들은 누구나 KSE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2000년 9월에는 포트폴리오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들이 KSE에 상장된 공동출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하는 좋은 점으로 내국인이나 쿠웨이트 거주 외국인 개인에게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쿠웨이트 내의 산업개발에 관련된 기업은 기업 자본이 대부분 쿠웨이트 자본일 경우 기업 소득세를 10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로열티나 송금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다.

쿠웨이트 정부는 그 동안 국가경제에서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민영화 작업에서 정부는 여러 민간 기업과 은행의 정부 지분을 KSE에서의 공개 경매와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하였다<sup>30)</sup>. 1992년 9월 쿠웨이트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은 3단계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주로 석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1단계로부터 정부는 국내 기업 중 정부 소유 자산을 거의 29억 달러 매각하였다. 2단계와 3단계에는 석유화학공업회사(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와 쿠웨이트항공(Kuwait Airways Corporation) 등 특정한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포함된다.

30)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Economic Trends and Outlook: Kuwait,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 4) 카타르

GCC의 창설 회원국인 카타르는 통신이나 관광 등의 부문을 성장시킴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에 기반한 경제를 다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sup>31)</sup>. 카타르는 또한 WTO의 회원국이며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다. 최근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의 보완을 위하여 공업 부문을 다변화시켰다. 지난 30년간 외국인투자가 다량 유입되면서 카타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더욱 성장하였다. 카타르 정부는 페르시아만 중앙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수출 허브의 초대형 항만의 건설에 투자하였다. 1998년 카타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조심스러운 통화 및 외환 정책으로 인해 낮게 유지되었다.

카타르 정부는 인프라와 석유화학 사업 개발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자와 관광 및 건축 사업을 위한 소규모 투자를 모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성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국가 소유인 산업의 민영화, 저렴한 에너지 제공, 저렴한 노동력, 낮은 생활 비용, 페르시아만 중앙의 위치 등으로 창출된 것이다.

민영화 작업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독립적인 전력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 사업에서 90%의 지분을 외국인 개발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카타르는 또한 간접비용이나 사업비용이 낮아 기업들이 경쟁적인 가격으로 국제 마케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의 관세가 면제되어 있어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카타르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나 판매세가 없다. 단 모든 외국인투자자는 카타르 국내에서 취득한 영업이익에 대해

31) Macroeconomic Overview of Qatar, Arab Finance, Dec. 12, 2002, <https://www.arabfinance.com/AFSource>.

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투자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카타르 국민과 협력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카타르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GCC회원국의 국민은 제외) 정도를 들 수 있다. 대신 외국인들은 최고 50년까지의 장기 리스를 받을 수 있다<sup>32)</sup>. 또 외국인 수출업자는 카타르 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은 카타르 국내에서 수입업을 하거나 영업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 5) UAE

### (1) UAE의 구성과 경제현황

UAE는 최근의 고유가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인프라를 확장하고 경제 다변화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UAE의 해안에는 현대적인 고층빌딩, 공장, 호화 호텔, 공항, 병원, 새로운 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해서 소득 격차가 크지 아니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UAE는 각각 주권을 갖는 아부다비(수도), 두바이, 샤자, 아즈만, 움 알 콰인, 라스 알 카이마, 후자이라 등 일곱 개의 에미리트(Emirate)의 연합이다. 두바이는 UAE 제조업 수출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두바이는 또한 새로운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부다비는 UAE 석유생산량의 90%를 차지

32)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Investment Law: Qatar,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하며, UAE GDP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UAE경제에서도 물론 에너지산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UAE의 석유수익이 1998년 중동지역내 석유 위기로 30% 감소하자 민간 부분의 석유의 산업에서 GDP에 4.7%를 증대시킴으로써 손실분을 보충하였다. 지도자들이 경제의 다변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석유 산업에의 의존도는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주의 철폐,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유기업체의 매출 향상 등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가능해졌다.

UAE는 GCC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석유산업을 넘어서 경제의 민영화와 다변화를 추진한 국가이다. 여전히 UAE의 수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GNP에서의 비중은 1/3 정도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GNP는 제조, 건설, 유통, 석유화학, 관광 등에서 창출되고 있다. UAE는 다변화를 위하여 제철소와 케이블 공장 등 여러 새로운 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UAE 정부는 해외 기업과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항만과 공항 인프라, 해외 무역지대, 병원, 기업체 등의 개발 및 확장 작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아부다비의 투자자들은 정유, 가스가공, 석유화학 등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들은 건설, 부동산, 서비스 등에 집중하고 있다.

UAE에는 잘 발달된 상업 은행 부문이 존재하여 고객들에게 완전한 소매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서비스 다양화 역시 UAE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 3월 UAE 증권거래소가 개설되면 더욱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아랍의 은행업계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100위권 은행 중 UAE 은행이 17개나 포함되어 있다.

## (2) 자유무역지대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

UAE 경제의 가장 큰 매력은 국내의 여러 자유무역지대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두바이의 제벨 알리(Jebel Ali) 자유무역지대이다. 1992년



9월 법에 의거 설치된 제벨 알리에 자유무역지대 기업(FZEs, Free Zone Establishments)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업 지배구조와 영업에 대한 국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자유무역지대기업들은 시에 영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정관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 한 명의 주주만으로도 그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한 기업을 FZE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유무역지대 당국자에게 신청서와 질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가 허용되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당국은 외국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도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5년간의 세금 면제(15년 연장 가능), 자본 및 이익의 100% 본국 송금, 개인소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제벨 알리 외에도 두바이 국제공항, 샤자, 아부다비의 사디야트(Saadiyat) 등의 자유무역지대에서도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기업의 설립이 간단하기 때문에 100여 개의 주요 미국 기업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오프쇼어 बैं킹과 제조의 중심지로 인기가 높다. 사디야트 섬의 14평방마일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는 비파세 오프쇼어 금융센터, 화물전용 공항, 항만 등이 있으며 100% 외국인 기업소유와 이익의 100% 본국 송금 등이 허용된다. 또 사디야트에 증권거래소(원자재, 선물, 옵션 거래소와 함께)가 설립되면 자유무역지대가 금융 및 원자재 허브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에는 수입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본적인 식품과 건축 자재에는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무기, 탄환, 스포츠용 소총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도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한다. 수출면허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서류는 원하는 통화 단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외환 통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UAE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UAE 수입

자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항구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자신을 대리할 내국인 영업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세법은 UAE에서 영업 중인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석유생산기업뿐이다. 석유와 천연 가스 업체와 외국 은행 외에는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아니한다. 또 자본수익, 배당금, 매출, 부동산 이전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UAE 통화는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고, 회수자본과 이윤의 본국 송금에 전혀 제한이 없다. 1991년 UAE 정부는 오프쇼어 은행이 통화 제약 없이 비과세 금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공문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우선적인 목적은 UAE내에 제조업 시설을 건설하는 다국적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은행의 수에도 제한이 없다.

UAE에는 연방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각의 에미리트가 나름대로의 경제발전 목표가 있으며 산업 개발 정책도 에미리트 단위로 수립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기업은 UAE 연방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영업에 대해서는 연방회사법(Federal Commercial Companies Law)에서 정한다.

## 6) 오 만

### (1) 1994년 외국자본투자법

오만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중동 국가로 오랫동안 개혁과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었다. 현재 오만 정부는 일정 부문에서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sup>33)</sup>. 오만은 2000년 11월 WTO에 가입했고 그 뒤로 시장자유화와 다변

---

33) CIA World Factbook - Oman,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print/mu.html>.

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만은 또한 발전중인 호텔과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자유화하고, 민영화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점점 늘어나는 국내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만내의 외국인투자는 1994년의 외국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의 규율을 받는다. 이 법에서는 오만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오만 상업산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34)</sup>. 최근 오만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소유권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제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390,000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되는 경우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13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100% 외국인 소유도 인정하고 있다.

1993년 오만상업산업부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이 주식투자의 65%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 정도의 투자는 특정 산업에서만 허용이 되는 바, 농업, 건축하도급, 복합 상업 서비스, 관광, 무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대리인 활동에서 외국인지분은 여전히 49%로 제한되었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활동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면세 혜택은 특정한 산업에서 5년(5년 연장 가능) 주어진다.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수입 장비와 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오만은 개인의 소득, 배당금, 이자, 부동산, 선물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5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63,000달러의 자본을 투자하여야 하고, 각 산업에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부와의 계약으로 일하는 컨설팅 회사와 전문 직종의 개인들은 지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34) The Omani Centre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Export Development, Foreign Investment Law, <http://www/ociped.com/investments/law.asp?ulink=I>.

오만에서는 수입 허가나 면허가 불필요하다. 단 일부 품목은 배타적 면허를 받은 대리인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무기와 탄약 등이 포함된다. 수입업자가 국내 유통업자나 에이전트일 필요는 없다. 최근 술탄 울령에 따라 정부는 대리인이나 수수료 없이 상품을 수입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가한다.

## (2) 투자지로서의 평가

오만 투자의 다른 장점으로 다양한 국내 및 외국 은행, 2%의 낮은 관세, 자본과 수입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미국과의 우호적인 상업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오만은 1976년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과 협정을 맺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 이 협정에서는 징발, 국유화, 전쟁, 혁명으로부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오만개발은행을 설립하여 광업과 석유 산업의 민간 기업의 요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은행은 정부, 오만 국민, 외국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금융 자문을 제공한다. 또 농업, 어업, 석유, 광업 분야의 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조 및 광업 회사에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4,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석유 부문이 오만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으로, 정부는 석유기반경제를 다변화하고 다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석유 수익의 일부를 국가준비기금(State General Reserve Fund)으로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또 정부는 천연가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9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관 건설사업을 계획 중이다. 구리 등 기타 천연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 달러의 융자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오만 북동부 매장량 1,100만 톤의 구리 광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또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아라비아해에서의

어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오만은 경제의 거의 모든 핵심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경제의 다변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서방으로의 석유 공급량의 1/3이 통과하는 호르무즈(Hormuz) 해협을 선적 경로 내의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중동의 미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IV. GCC 이외 국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및 이란

##### 1. 요르단

###### 1) 국제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다음으로 분쟁의 부담이 큰 국가는 요르단이다. 걸프전과 그에 따른 UN의 이라크 경제제재로 인하여 요르단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제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경제와 천연자원 부문에 또 다른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인근 무역상대국들의 상황은 유동적이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지역 분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요르단은 거시경제 안정화,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sup>35)</sup>. 경제개혁은 또한 요르단의 젊은 인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요르단의 청년인구는 5백만에 이르고, 그 중 70%는 30세 미만이다<sup>36)</sup>. 청년 인구를 경제에 흡수하기 위하여 요르단 정부는 교육, 문맹퇴치, 보건 등의 인적자본 개발에

35) The World Bank Group, Country Brief: Jordan (Sept. 2004), <http://web/worldbank.org>.

36) *Ibid.*

투자하고 있다<sup>37)</sup>. 현재 실업률은 15%에 달하는 반면 노동력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이다. 요르단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압둘라 왕 정권이 들어선 뒤 요르단은 WTO 가입과 미국, 유럽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와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요르단은 여러 가지 민영화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통신과 교통 부문 및 공업과 전력 사업에 외국인투자를 증대하였다<sup>38)</sup>.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의 무역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였다. 이 협정에서는 2010년 1월까지 10년 동안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자유 무역 지대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39)</sup>. 현재 요르단 정부는 모든 주요 제품 부문에서 관세의 83%를 철폐한 상태이며 2005년 9월에는 95%까지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요르단 정부는 2014년 완결되는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요르단의 민영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민간 기업들이 요르단 통신 공사(Jordan Telecommunication Company)와 아랍 가성알칼리 공장(Arab Potash Company)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였다. 또 정부는 왕립요르단항공(Royal Jordanian Airlines)의 영업 부문의 지분 49%를 인수하기 위한 외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37)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uman Resources (2004), <http://www.kinghussein.gov.jo/resources.html>.

38)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Investment Climate: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39)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Economic Trends and Outlook: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 2) 개정 외국인투자법

무엇보다도 요르단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유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은 제조, 관광, 비무역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의 공개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지분 100% 소유를 인정하는 중동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요르단의 3대 개발 영역에서 세금과 관세를 면제 받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 영역에서는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C영역에는 모든 농업, 해상 운송, 철도 투자가 포함된다<sup>40)</sup>. A영역에는 호텔, 관광, 레저, 레크리에이션 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포함된다<sup>41)</sup>. 투자증진위원회(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가 허가한 사업에서는 소득세와 사회서비스 세금 10년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sup>42)</sup>. 이러한 혜택에는 투자 초기 5년간, 그리고 A영역의 산업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한 100% 세금 면제도 포함되며, 그 후 2년간은 40%의 세금이 면제된다. B영역의 사업은 8년간 세금 완전 면제이며 C영역은 12년간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특정 부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이외에도 요르단 정부는 아카바(Aquaba)항 대부분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자유무역지대에 보관했다가 인근 시장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활동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요르단에서 신규 기업이어야 하고,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요르단 국내의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술노동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아카바는 지역의 모든 현대적 항만과

40)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Performance Requirements/Incentives: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f41c595bf093a662852566f2004cfcf6/83ca390b3e7f7fb785256f150064cb3e!OpenDocument>.

41) *Ibid.*

42) *Ibid.*

연계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근 항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체 문제는 해결하였다.

또한 요르단의 현대적 고속도로 체계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지역 국가, 시리아 등을 향한 상품 수입이 증진되고 있다. 현재 아카바 항은 새로운 리조트와 호텔이 들어서면서 관광 명소로 개발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불안정으로 관광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서방 관광객 수가 2005년 1.4분기 60% 증가하였다.

요르단 내에서의 상업 거래는 상법과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sup>43)</sup>. 요르단 헌법에서는 법원이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거래 관련 문제는 세속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sup>44)</sup>. 1995년 투자증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분쟁해결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분쟁조정방식을 따르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이자 외국인의 중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1958년의 뉴욕 협약을 준수한다<sup>45)</sup>. 정부에서는 요르단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에 저금리 용자와 무료의 투자 안내를 제공한다. 압둘라 왕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권을 이어받은 뒤 압둘라 왕은 국가 행정 개혁과 정부 투명성 및 신뢰성과 시민의 자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오늘날 새로운 교역 상대들의 지원과 압둘라 왕의 지도하에 요르단은 경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요르단은 중동 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

43) Jordan, Countrywatch.com, available at <http://aol.countrywatch.com/aol print.asp?v COUNTRY=87&SECTION=COVER&TOPIC=INFIC&TYPE=TEXT>.

44) *Ibid*.

45)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Dispute Settlement: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f41c595bf093a662852566f2004cfcf6/3a9fc7251e50c6a585256f15005a8032!OpenDocument>.



이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기타 유럽 국가에서 요르단의 국가 부채 4억 2천만 달러를 탕감하였다. 이라크에서의 폭력과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정보센터는 요르단의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며 2003년 3.2%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2. 이집트

### 1) 쌍무적인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체결

미국 무역정보센터는 이라크 전쟁으로 이집트가 입게 될 손실이 10억 달러에 가깝다고 추정하였다<sup>46)</sup>. 지난 수년간의 경제 상황에서도 9/11 테러와 이라크 분쟁에 이은 어려운 상황을 읽을 수 있다. IMF에서는 현재 이집트가 이러한 사건과 다른 지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였다<sup>47)</sup>.

IMF 임원들은 이집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48)</sup>. 실업률이 거의 1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일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투자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효율성 향상과 국제 무역 체제로의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sup>49)</sup>.

2001년 6월 이집트는 EU와 2004년 1월 1일 발효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이집트 수출업자들이 유럽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46) Stat - USA Egypt Country Commercial Guide FY 2004: Economic Trends and Outlook,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47) Egypt: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4/69,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69.htm>.

48) *Ibid.*

49) *Ibid.*

있도록 하고 유럽 기업들에게 관세와 기타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거의 6억 1,500만 유로의 사업지원금과 11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여 이집트 산업을 현대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이집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이집트 수출입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EU와의 협력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이집트와 EU 사이의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이집트의 최대무역상대국이다. 이집트 수입의 20%, 수출의 11%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01년 말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30억 6,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992년부터 미국과 이집트는 쌍무적투자협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차별대우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몰수와 보상에 대한 국제법 표준, 국제 중재 등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공인된 절차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1999년 이집트와 미국은 미국의 이집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관련입법 및 성과

관광은 이집트의 최대 외화 수입원이나, 동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분쟁 등 지역적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집트 경제연구센터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이집트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 수입은 이라크전 개전과 함께 2003년 3월 22% 감소하였다. 다행히도 작년 3, 4월에는 관광업의 회복세가 뚜렷했으며 중동지역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추정에 따르면 입국 관광객이 2005년까지 매년 95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정부도 중동지역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집트 의회에서는 2003년 핵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2

월에는 통신규제권한법, 5월에는 통합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이집트의 통신규제권한법은 국가통신감독청(National Telecom Regulatory Authority)의 권한을 확대하여 사업면허와 허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이집트의 의무와도 부합하며, 텔레콤이집트(Telecom Egypt)의 유선 서비스에 대한 독점을 종료시킨다.

관광업과는 달리 에너지산업은 지역 불안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가스 생산량과 매장량은 지난 5년간 약 75% 증가하였다. 가스 매장량은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증가했으며 이집트는 화력발전 연료의 81%를 가스로 전환하여 잉여가스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천연가스전의 개발속도가 국내수요를 앞지르고 있으며, 정부는 가스의 수출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석유 탐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03년 5월 BP는 수에즈 만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약 8천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일 40,000-50,000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내기업업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집트는 분쟁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수단을 지원한다. 이집트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1971년에 가입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해당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사이의 투자 분쟁의 중재를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된다. 정부에서는 또한 1997년 제 8호 법(Law 8)을 제정했는데, 여기서는 쌍무협정, ICSID, 또는 국제 상업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3. 리비아

1986년 미국은 리비아에 경제제재를 선포했고 이후 최근까지 미국 시민의 리비아에 대한 무역과 여행을 금지해왔다.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 and Libya Sanctions Act)의 對리비아 정책은 리비아가 UN 결의안731, 748, 883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들에서는 의심되는 국제테러 활동에 대한 지원과 대량살상무기 취득 및 개발을 위한 의심되는 노력의 종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의안들을 통하여 국제 사회는 트리폴리와의 외교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리비아는 1988년 펜암항공기의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공중폭파에서 자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리비아는 또한 폭파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UN과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테러를 비난하고, 2004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미국은 리비아의 외교적 노력에 대하여 최초의 미 연방 의회 대표를 1969년 이래 처음으로 리비아에 파견하고 1980년 미 대사관을 폐쇄한 후 처음으로 외교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9월 20일 부시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끝내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sup>50</sup>). 또한 1985년 11월 15일의 대통령령 12,538호를 취소하여 리비아에서 정유된 석유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치를 철폐하였다. 새 대통령령에서는 또한 리비아제재법에 따라 동결하였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모든 봉쇄조치를 철폐하였다. 리비아는 아직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외교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및 안보 관련 자재는 앞으로 리비아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그럼에도 리비아 경제는 항공 부문에

50) Exec. Order No. 13,357, 69 Fed. Reg. 56, 665 (Sept. 20,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9/20040920-5.htm>.

대한 경제 제재 철폐, 미국으로의 직항로 복구, 그리고 미국의 리비아투자 증대 등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 4. 이 란

##### 1)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 적용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Iran and Libya Sanctions Act)의 이란 관련규정은 이란과 리비아가 석유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특정의 투자를 하는 개인과 리비아의 무기와 항공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리비아가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기타 목적의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란·리비아제재법은 이 법에 의하여 리비아와 이란에 대하여 가해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추가하여 미국의 동맹국중 이란과 교역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이란의 석유 부문에 4천만 달러 이상을 12개월 내에 투자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그리고 “강화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 동맹국, 외국 기업들이 리비아와 이란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리비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이란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 조치가 유효하다.

이란·리비아제재법은 이란이 석유 자원에 대한 탐사, 추출, 정유 및 운송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정치·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란에서는 1979년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정치적 통제 하에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정부는 자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와 정부지원을 받는 석유사업은 인플레이션

과 실업률(현재 16%에 육박)을 증가시키고 내부적인 정치적 파벌을 강화시켰다.

혁명후 새로운 정부는 은행과 석유, 운송, 유틸리티, 광업 부문을 국유화하였다<sup>51)</sup>. 현재 이란의 경제는 국영기업, 소규모 농업, 개인 서비스 소기업 등이 이끌고 있다<sup>52)</sup>. 지난 수년동안 정부 내 개혁가들은 비틀거리는 경제에서 민영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 개혁가인 모하메드 카타미 대통령은 시장 개혁 계획을 따르고 석유 기반 경제를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53)</sup>. 미국도 이와 같은 개혁을 환영했고, 클린턴 정부는 2000년 3월 수입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sup>54)</sup>. 메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여 미국인이 이란 카펫이나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55)</sup>.

또한 미국 재무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수입제한 완화에 맞추어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의 이란에 대한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였다<sup>56)</sup>. 이러한 수출 정책 하에서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사례별로 사업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개인, 비정부법인, OFAC이 인정한 정부조달 기관 등 허가된 매입자에 대한 상기의 품목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는 허가를 받은 미국인들이 적하농산물을 증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sup>57)</sup>. 해당 규정에서는 선불, 당좌 계정을 이용한 매각, 또는 제3국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제한한다<sup>58)</sup>.

51) U.S. Dep't of State, Bureau of Near Eastern Affairs, Iran Profile August 2004, [http:// www.state.gov/r/pa/ei/bgn/5314.htm](http://www.state.gov/r/pa/ei/bgn/5314.htm).

52) *Ibid.*

53) *Ibid.*

54) Madeleine K. Albright, Remarks Before the American-Iranian Council (Mar. 17, 2000), <http://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0317.html>.

55) *Ibid.*

56)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Sanctions Lifted on Food,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to Iran, available at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57) *Ibid.*

그러나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제한은 완화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대이란 수출제한을 지속하는 한편 이란·리비아제재법은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란·리비아제재법의 “적용배제”를 허용하였다<sup>59)</sup>. EU와 WTO내 미국동맹국들의 압박으로 이란·리비아제재법에서 언급한 분야외에는 제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sup>60)</sup>.

## 2) 민영화 추진과 경제자유화

이란은 현재 통신과 은행 부문에서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민간 기업들이 테헤란증권거래소(TSE)에 점차적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IMF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투자를 증대시켰으며 경제개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이란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큰 부분은 2001년 석유안정화기금(Oil Stabilization Fund)의 설치, 석유외산업의 다변화와 성장, 국가 지원 체계의 개혁, 은행 및 보험업의 민영화 등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혁명 이후 은행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있지만, TSE는 2002년 은행주식 상장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 민영화의 목적은 금융 부문의 투명성과 경쟁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은 현재 외국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자유화와 다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이란은 GCC와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정조인을 준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이

58) *Ibid.*

59) Madeleine K. Albright, Statement on ILSA: Decision in the South Pars Case, <http://www.aghayan.com/ilsw051898.htm>.

60) Wynn H. Segall, Running on Empty: U.S.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in 1997, *Int'l Lawyer*, Vol.32(1998), p. 271.

란의 자국과 인근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이 GCC내에서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1995년 외국인투자유치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이란의 1995년 외국인투자유치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입법부가 제정한 최초의 구체적인 외국인투자법이다<sup>61)</sup>. 이 법은 외국인투자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란 의회는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15년 동안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sup>62)</sup>. 이 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다양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sup>63)</sup>. 이 법에 의하여 이란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up>64)</sup>.

이란 경제는 제1차5개년 계획에서 도입된 개혁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장장을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통제하고 있던 산업의 민영화 및 민간 기업의 TSE 상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sup>65)</sup>.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발달된 항만과 수로를 보유하고도 국제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

61) Status of Foreign Investments in Iran, at <http://iranlaw.online.fr/laws2.html#f%20investments>.

62) Free Trade Zones, Message from the Iranian Secretariat of the 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http://www.salamiran.org/Economy/FreeZones/FTZ.html>.

63) *Ibid*.

64) *Ibid*.

65) Iran's Third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Plan of 2000-2004, [http://www.salamiran.org/Economy/third plan.html](http://www.salamiran.org/Economy/third%20plan.html).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발전계획의 제3장은 민영화와 국영기업 지분의 양도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정된 국영 기업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운영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의 지분과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독점 시장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3차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발전계획의 제10장에서는 금융시장 재편을 위하여 필수적인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하에서 이란중앙은행은 국제은행업계에서 경쟁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증권 시장으로 성립된 자본 시장을 위한 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4) 1993년 자유무역지대법

의회가 1993년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라 설치한 세 개의 자유무역-산업 지대에서는 헌법의 구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무역법이 적용된다. 이 자유무역지대는 자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이란 관세청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키시 섬, 케심 섬, 차바하르 항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5년간의 세금 면제, 관세 면제, 외국인투자 및 자본과 이익의 전액 본국 송금 허용, 오프쇼어 बैं킹, 외국인 입국 비자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다.

최근 IMF는 이란경제가 제3차 5개년개발계획(2000- 2004) 도입 이후 시행된 주요 구조조정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sup>66)</sup>. IMF에서는 이란경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민간 부문의 활동이 증가한 것이 이란의

66)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4/109,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109.htm>.

경제성장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sup>67)</sup>. 3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중 첫 4년 동안 실질 GDP 성장은 평균 5.6%였고, 외부 부채는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감소하였다<sup>68)</sup>. IMF는 이란의 민간부문 및 국제무역 발전목표를 지지하였다. 또한 IMF는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핵심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 V. 결론: 중동의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중동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동 전체가 사회적·정치적 안정의 기반위에 국제경제활동의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와 미국은 이와 같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입지를 굳히고자 하고 있다. 수 세기 전부터 대륙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무역 실크로드를 건설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중동 국가들에게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은 제2의 본성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는 중동 지역의 오늘날의 성장과 경제회복의 기틀이 되었다. 중동 국가들은 무역과 상업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올라마”들과 같이 실용주의적으로 또한 대중의 동의를 구해 처리했으며, 수백년 전부터 샤리아의 제약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실용주의와 유연성이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1997년 IMF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67) *Ibid.*

68) *Ibid.*

수많은 중동 국가에서 경제적 태도와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대신 세계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sup>69)</sup>.

중동 지역과 해외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동 국가들은 이라크 분쟁에 주의 깊게 대응하여 경제적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sup>70)</sup>. 그러나 역내의 최대 수출국들은 거의 30% 가까이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120억 달러의 흑자와 균형예산을 얻을 수 있었다. All-Arab 지수는 12개 아랍 국가의 79개 주식 종목을 반영하는데, 2003년 50% 성장하였다. IMF에서는 또한 향후에도 중동지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5%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라크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대시켰다. 무역·투자기본협정(TIFA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양자간 투자협정(B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은 중동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외교 관계와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71)</sup>. 중동 자유무역 계획을 도입한 후 부시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sup>72)</sup>, 이집트<sup>73)</sup>, 쿠웨이트<sup>74)</sup>, 바레인<sup>75)</sup>, UAE<sup>76)</sup>, 카타

69) *Ibid.*

70) <http://www.imf.org/external/np/tr/2003/tr030918a.html>.

71)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http://www.ustr.gov/new/fta/Morocco/2004-03-02-middleeast-factsheet.pdf>

72) *Ibid.*

73) *Ibid.*

74)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Kuwait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Feb. 6,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2/04-06.pdf>.

75)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Zoellick Joins Launching of

르<sup>77)</sup>, 오만<sup>78)</sup>과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역·투자기본협정은 투자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투자기본협정을 통해 협상 참여국의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증진하고 해당 시장에 보다 많은 미국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바레인과 모로코와는 협상을 시작한 상태이다. 최근 2004년 말에 종료된 미국 의회의 미-바레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의 농민, 근로자, 기업들을 위한 수출기회 증대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과 함께 바레인은 WTO의 IT 협정에 가입했으며 컴퓨터와 통신 분야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인터넷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을 자유화하고 상업 및 법률체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으로 하여금 WTO에 가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중동자유무역지대가 2013년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의 WTO가입을

---

U.S.-Bahrain FTA Congressional Caucus (Mar. 3,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16.pdf>.

76)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United Arab Emirates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Mar. 15,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18.pdf>.

77)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Qatar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Mar. 19,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23.pdf>.

78)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Oman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July 7, 2004), <http://www.ustr.gov/DocumentLibrary/PressRelease/2004>.

적극 지원하고 현재 중동의 WTO 회원국들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79)</sup>.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동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성장, 일자리 창출, 석유의존도가 낮은 역동적인 경제체제 확립 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동 국가들은 전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최근 자유무역 계획 및 EU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하여 가속화되었으며, 결국 외교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가스 및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취약해지기 쉬운 지역적 안정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은 반드시 중동의 풍부한 역사, 문화, 다양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A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국과 중동 기업 간의 교역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sup>80)</sup>. ABCGC는 1989년 창설되어 걸프 지역에서 미국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sup>81)</sup>, 자발적으로 미국과 GCC 국가들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역, 투자, 문화교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sup>82)</sup>.

중동 국가와의 기업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역동적인 무역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중동의 문화적 법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할

79) <http://www.ustr.gov/new/index2003.shtml>.

80)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the Gulf Countries, Promoting America's Business Interests in the GCC, <http://www.abcg.org/about.html>.

81) *Ibid.*

82) 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휴단체로 걸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홉 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ABCGC는 걸프 지역에서 영업 중인 75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Ibid.*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동에서의 무역과 투자증진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찾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중동의 무역·투자상대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